



천출명장을 높이 모시여 조국의 바다는 영원히 맑고 푸르다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란 누구나 가슴뿌듯한 긍지를 안고 맞이하는 승리의 7.27이다.

전승 70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겠지만 나 역시 이 땅에 전승의 환희를 안아온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송고한 경의를 드리면서 이 글을 쓴다.

나의 아버지는 우리 인민들뿐 아니라 세상에 널리 알려졌있는 영웅한 해병이다.

이름은 김군옥. 가려져있었던 지난 조국해방전쟁기 주문진해전에서 단 4척의 어뢰정으로 《바다의 섬》이라 일컫던 미제의 중순양함을 동해깊이에 수장시켰음

다 시 찾 은 바 다

내 나이도 어느덧 60고개를 넘 어있다.

세월의 흐름은 모든것을 망각의 이끼속에 묻어버린지만 나의 뇌리속에 남은 울음을 가까이한 고행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의해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공훈강사의 중임을 맡고 주름깊은 얼굴에 뜨거 운웃을 소리없이 흘리던 아버지의 모습이 낯지 않은 사진처럼 또렷이 새겨져있다.

어느해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제2어뢰정대장으로 잘 싸운 동무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강사로 배치하여야 한다고, 그는 용감하고 대단한 싸움꾼이었다고,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그가 지휘한 제2어뢰정대가 주문진해바다에서 4척의 어뢰정을 가지고 《바다우에 떠있는 섬》이라고 하던 미제의 중순양함을 격침시킨것은 세계해전사에 없는 위훈이었다고, 그때 우리는 그 위훈을 세상에 널리 자랑하였다고 교시하시었다.

아버지는 단단한 체격에 시원한 성미로 무슨 일에서나 주저를 모르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다. 그런 아버지가 그날만은 어찌나 많은 눈물을 흘리시던지.

아마도 뜻밖에 행운을 받아안은 순간이면 웃음보다 눈물이 먼저 나오는것이 인간의 진실한 감정인것같다.

아버지는 평안북도 의주군의 자그마한 섬마을에서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

나라했던 그 시절 미제에 빼앗긴 들에도 일제의 억압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와 한찍인 선주들의 착취로 어느 하루도 편만한 날이 없었다고 한다. 마을사람들은 왜놈들을 등에 업고 험한 날씨에도 사람들을 바다에로 마구 내모는 선주들의 동생애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갔다.

시인 리상화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고 울분과 설움에 젖어 절규하였듯이 나라를 빼앗기니 바다도 남의것으로 되었다. 섬마을사람들이 명줄을 걸고 사는 바다에서는 슬픔과 비애의 탄식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나의 아버지도 첩이 들기 전부터 눈물겨운 인생고초를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못된 세상에서 증병을 만난 나의 할아버지는 늘 방 한구석에서 쿵쿵쿵 쿵쿵소리를 내며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하고있었고 울망졸망한 자식들을 먹여살리고 앓는 남편을 병치료하는 데 드는 돈을 벌려고 나의 할머니는 늘 바다에 나가 살다싶이 하였다.

그 시절 아버지에게 한가닥 기쁨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다에 대한 류다른 감정이었다고 한다.

달빛이 없는 한밤에도 그냥 출렁이고 파도치며 잠들지 않는 바다의 목소리를 자장가소리처럼 들으며 자라난 아버지에게 있어서 바다는 더없이 친근한 길동무였고 친절한 어린 가슴에 아름다운 꿈을 심어주는 따뜻한 요람과도 같았다.

그런데 그 바다가 집안의 유일한 기둥이었고 희망이었던 나의 할머니를 하루아침에 빼앗아 갔다.

로써 세계해전사에 전무후무한 기적을 창조한 주인공들중의 한사람이다.

사람들은 지금도 종종 묻곤 한다. 어떻게 되어 나의 아버지가 그처럼 빛나는 위훈을 창조할수 있었는가고.

그것을 어떻게 한마디로 다 이야기할수 있으랴.

조국의 맑고 푸른 하늘가에 전승의 년표이 일흔번째로 새겨지는 뜻깊은 날을 맞으며 나는 영웅의 아들로서 긍지를 안고 후대들앞에, 력사앞에 당당히 말하려고 한다.

위대한 전승세대의 불멸의 위훈이 깃든 내 조국의 바다가 영원히 맑고 아름다운데 대하여.

선주들에게 진 빚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조개를 주으러 바다에 나갔던 할머니가 그만 사정없이 덮쳐오는 밀물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날부터 아버지의 두눈에는 바다의 푸른빛이 피빛으로 안겨들었고 정겹게 들려오던 흰 파도소리는 아들을 애라게 찾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되어 애어린 가슴을 마구 헤집고 아프게 파고들었다고 한다.

야속한 세월은 이렇듯 7살도 안 되는 소년한테서 어머니를 빼앗아 갔고 2년후에는 병으로 앓던 아버지마저 앓아갔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정처없는 쓰내기생활을 하였고 12살 나던 해엔 지역땅에까지 건너가 우유배달과 신문배달로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였다. 당시 이국의 하늘밑에서 아버지는 이름대신 《거지》라고 불리우며 뼈도 채 굴기 전에 온갖 굶은일을 다 하였다.

그야말로 풍랑사나운 바다의 쪽배와도 같은 가냘픈 인생이었다.

이것이 어찌 아버지 한사람만의 불우한 운명이었으랴. 나라없는 설움을 삼키며 노예로 살던 우리 인민의 슬픈 인생이었다.

아버지는 땅국노의 설움은 어떤 설움에도 비길수 없는 설움중의 설움이라고 하면서 나라를 빼앗기면 한사람, 한가정의 운명만이 아닌 온 민족의 운명이 나의 할머니의 운명처럼 보이지 않는 바다속으로 수장되고만다고 이야기하곤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시어 나의 아버지의 목절 많은 운명에도 햇빛이 비쳐들었다.

아버지는 해방된 조국땅에 돌아와 정든 바다가모래물에 어푸러 지듯 안기였다.

아버지의 눈에 비껴드는 바다는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 바다는

와 함께 인민이 주인된 해방후 5년의 꿈같은 세월도 흘렀으니 정 리라!
내 이 바다를 목숨으로 지키 리라!
아버지는 이렇게 조국의 바다를 지키는 해병이 되었다.

조 국 의 신 성 한 바 다 는 침 략 자 들 을 용 서 치 않 는 다

《어뢰정으로 중순양함 격침, 이것은 전투가 아니라 기적이 다》, 《쓰디쓴 대참패에 미국이 어뢰정(4척)은 미군 7함대관하 중순양함 (볼티모)호를 보긴 좋게 격침시키고 경순양함 1척을 격침시켰다. 이것은 황소와 따봉간의 싸움에서 체통이 큰 황소가 따봉의 침에 쏘여 완전 너부러진 것으로 된다. 이것은 세계해전사에 처음으로 되는 기적중의 기적이다》...

당시 주문진해전을 두고 세계의 통신, 방송이 앞을 다투어 한 보도의 일부이다.
아마도 세상을 들었다놓은 그 전투를 나의 아버지가 20대의 젊은 나이에 지휘했다면 사람들은 더욱 믿기 어려웠을것이다.
왜 그렇지 않았는가.

《바다우에 떠다니는 섬》이라고 불리우는 《볼티모》호만 20미터 길이는 205m, 무게 1만 7 300t, 병력수는 1 700명, 각종 함포만 해도 69문에 비행까지 탑재하고있었다. 이런 중순양함 1척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해엔 이역땅에까지 건너가 우유배달과 신문배달로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였다. 당시 이국의 하늘밑에서 아버지는 이름대신 《거지》라고 불리우며 뼈도 채 굴기 전에 온갖 굶은일을 다 하였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정처없는 쓰내기생활을 하였고 12살 나던 해엔 지역땅에까지 건너가 우유배달과 신문배달로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였다. 당시 이국의 하늘밑에서 아버지는 이름대신 《거지》라고 불리우며 뼈도 채 굴기 전에 온갖 굶은일을 다 하였다.

그야말로 풍랑사나운 바다의 쪽배와도 같은 가냘픈 인생이었다.

이것이 어찌 아버지 한사람만의 불우한 운명이었으랴. 나라없는 설움을 삼키며 노예로 살던 우리 인민의 슬픈 인생이었다.

아버지는 땅국노의 설움은 어떤 설움에도 비길수 없는 설움중의 설움이라고 하면서 나라를 빼앗기면 한사람, 한가정의 운명만이 아닌 온 민족의 운명이 나의 할머니의 운명처럼 보이지 않는 바다속으로 수장되고만다고 이야기하곤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시어 나의 아버지의 목절 많은 운명에도 햇빛이 비쳐들었다.

아버지는 해방된 조국땅에 돌아와 정든 바다가모래물에 어푸러 지듯 안기였다.

아버지의 눈에 비껴드는 바다는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 바다는

조국이였다.
내 이 바다를 목숨으로 지키 리라!
아버지는 이렇게 조국의 바다를 지키는 해병이 되었다.

이미 이였다.
명장이 안겨주신 승리의 신심과 배짱을 안고 조선의 어뢰정대는 적함선들을 무찌르기 위해 출렁의 고통소리를 울리였다.

아버지를 비롯한 제2어뢰정대의 해병들의 가슴가슴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대담하고도 신묘한 전투방안과 함께 그이께서 안겨주신 담력과 배짱으로 싸우 면 반드시 이긴다는 승리의 신심이 새찬 파도마냥 일어번졌고 심장의 피는 침략자들에 대한 불라는 중요심으로 끓어번지고있었다.

《정대 어뢰돌격! 목표 적중순양함, 전속으로!》
《미제침략자들에게 죽음을 주라!》

용감한 해병들이 순식간에 날려보낸 3발의 어뢰에 얻어맞은 《볼티모》호는 점점 기울어지더니 서서히 침몰되기 시작하였다. 불과 몇분동안에 있는 일이었다. 뒤따라 날린 어뢰 한발에 정통을 얻어맞은 경순양함에서 굉음이 터지더니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아올랐다.

아버지는 그때 얼마나 바빠있었는지 십자를 그을새도 없이 구명대를 서로 빼앗으며 바다물에 뛰어들던 미국놈들의 가련한 물 끌을 보며 통쾌했던 그 순간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설움과 원한을 밀어내고 해방의 기쁨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조국의 바다가 불타고있었다. 원수들에 대한 해병들의 중요심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었다. 그 불도가니속으로 침략자들의 거장스러운 물품들이 허우적거리며 비참한 운명을 고했고있었다.

미국놈들의 《강대성》의 신화는 전쟁이 시작된 초시기에 지상에서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깨어지기 시작하였다.

결국 미제가 《움직이는 섬》이라고 그처럼 자랑하던 중순양함 《볼티모》호는 전투가 시작된지 4시간후인 1950년 7월 2일 9시 10분에 조선동해에 완전히 수장되고말았다.

아버지는 종종 그날의 전투에서 문화부정대장 김학성이 적들의 총탄을 맞고 온몸을 피로 물들이면서도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끝까지 수행해달라는 부탁을 남기었다고 하면서 퍼홀리며 쓰러진 전우들의 이름을 한사람한사

람 외워보곤 하였다.
아버지의 전투담을 들을 때마다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하였다.

죽음을 앞둔 그 시각 용사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였을까.
삶은 누구에게나 소중한다. 그러나 우리의 전승세대들은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돌도 없는 목숨도, 청춘도 아깝없이 바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조국은 무엇 이였던가.

아마 꿈속에서도 잊을수 없는 해방만세소리가 울려 퍼지던 환희로운 그날의 모습이었으리라. 상가집 개관도 못한 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던 자기들을 사랑함에 들게 해주고 제방에서 마운것 농사도 짓고 물고기도 잡으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해주 면 반드시 이긴다는 승리의 신심이 새찬 파도마냥 일어번졌고 심장의 피는 침략자들에 대한 불라는 중요심으로 끓어번지고있었다.

조국은 바로 이 귀중한 모든것을 안겨주신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이었다.

하기에 아버지를 비롯한 해병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불뿜는 적함선들에 주저없이 용맹하게 돌진하였던 것이다.

그때를 돌이켜보며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는 참관자들에게 아버지 는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였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볼티모호를 까부신 아버지) 라고 부르면서 세계해전사의 기적을 창조하였다고 말하곤 하는데 사실 그 기적의 창조자는 우리 수령님 이십니다.

주제38(1949)년 8월 28일 조선 인민군 해군함대의 창설을 선포한 력사적인 날에 내가 탄 어뢰정 2호에 몸소 오르시어 항해훈련을 지도해주신 아버지수령님께서 우리 해병들의 가슴마다에 안겨 주신 백두의 공격정신이 있어 우리는 바다에 기어든 미제침략자들을 동해바다속깊이 수장해버리는 세계해전력사에 없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습시다.

그러나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전투가 있는 후 조국형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위훈을 세운 제2어뢰정대 해병들에게 높은 국가표창을 주어야 하겠다고, 어뢰정대를 잘 지휘하여 주문진해상전투에서 승리를 이룩하는데 결정적2여력을 한 제2어뢰정대 정대장과 2발의 어뢰를 다 명중시켜 적중순양함을 격침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제22호어뢰정 정장에게 공화국영웅훈장을 주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베풀어 주시었다.

절세위인께서 아버지에게 안겨 주신 번쩍거리는 영웅메달!
지금도 우리 집 벽면에 소중한 진 전우들의 이름을 한사람한사

우메달을 보드라면 세계전쟁사에 없는 위훈과 기적을 련이어 창조하며 승리의 7.27을 안아온 아버지세대들의 불굴의 군상이 눈앞에 어려와 승엄한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

리훈, 리완근, 전기련, 리문순, 김기욱, 리수복, 강호영, 안영애, 장태화, 박민진, 김옥근, 황순복, 정학봉...

이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유명 무명의 용사들이 흘린 피와 세운 위훈들이 있어 이 땅에 위대한 전승의 력사적순간이 오지 않았던가.

전쟁, 그것은 철과 철의 부딪침, 피와 피의 대결을 초월하여 영웅과 위훈이 탄생하는 거대한 결전장이다.

어렸을 때 나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영웅인데 왜 영웅메달을 한번도 달지 않는가고 묻은적이 있

영 원 한 우 리 의 바 다

우리의 전승세대들이 퍼홀리며 지켜낸 조국의 바다에서는 지난 70년간 인민의 기쁨과 행복의 제부가 창조되고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맑고맑은 바다물결위에 실려어왔다.

위대한 수령님 시대에 《바다의 노래》의 구성진 노래소리가 울리던 바다에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에 의해 《바다 만풍기》의 노래소리 높이 울리고 황금해의 기적같은 력사가 다시 수놓아지게 되었다.

사회주의바다항기는 온 나라 가정들의 식탁에서 풍기고있다. 이 인민의 바다, 행복의 바다를 굳건히 지켜가는것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힘이다.

당연히 아버지가 섰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서 일해 온 오고있는 나는 전쟁의 포연내가 감관과 포신 그 어디에서나 어려 오는 그날의 어뢰정을 자주 찾곤 한다. 그럴 때면 아버지가 들려 주던 말이 귀전을 스치곤 했다.

아버지는 종종 아버지수령님께서 주신 전투임무를 받고 적전투함 선집단을 소멸하러 나갔을 때 매 어뢰정에 어뢰 2발과 고사기관총 1발밖에 없었다고, 어뢰가 조금만 더 크고 어뢰 한발씩만 더 있었더라도 적중순양함만이 아닌 다른 함선들도 다 바다에 수장해버렸을것이라고 몹시 아쉬워하면서 말하곤 하였다.

아버지가 아쉬워하였듯이 전쟁 당시 미국의 대함선집단을 대상으로 조국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나섰던 우리의 해군무력은 너무나 청소하였다.

그러면 우리의 해군무력은 지금 얼마나 강해졌는가.

나의 아버지가 살아서 이 가슴 호호한 광경을 보았다면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었다. 그때 아버지는 영웅메달은 가슴에 달고 다니라고 있는것이 아니라 심장에 새기고 살라고 있는것이라고 말해주었다.

침철던 그 시절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나는 리해할수 없었다. 허나 조국의 자주권과 영예를 지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운 력사들의 빛나는 삶을 추억하는 뜻깊은 이 시각 그 무엇으로도써 갚을수 없는 선렬들의 값있는 인생의 무게가 느껴지는것같다.

위대한 령장의 손길이 없었더라면 위훈도 영웅도 없었을것이다.

민족의 영웅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인 김일성장군님을 높이 모시어 전쟁의 3년간 매일, 매순간 이 나라의 땅과 바다, 하늘 그 어디에서나 침략자들을 멸망의 구렁렁이에 물어넣는 세계사적 기적과 빛나는 위훈들이 आरो새겨지게 되었던것이다.

영 원 한 우 리 의 바 다

어찌 바다뿐이라.
경애하는 원수님 시대에 조국은 바다도 청백이고 땅도 하늘도 더욱 철벽으로 되었다.

지금도 지난해 4월 뜻깊은 열병광장의 주석단에 서서여 엄숙히 천명하시던 위대한 령장의 선언이 울려오는것만 같다.

어떤 세력이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대결을 기도한다면 그들은 소멸될것이다.

모두의 가슴을 높롭게 하는 그의 팔뚝을 접하며 나는 전쟁 초기 우리 수령님께서 조선사람을 몰라보고 덤비는 놈들에게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 다시던 교시를 생각했다.

미국의 도발로 시작된 전쟁의 운명을 시초로 우리의 승리로 결정되는 그날의 선언이 더 큰 힘으로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메아리치고있는것이 아닌가.

그 선언이 한갖 빈말이 아님을 나는 얼마전에 다시금 더욱 똑똑히 느끼게 되었다.

조선의 힘을 다시금 만천하에 파시던 력사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여지없이 깨버리고 위대한 조선인민이 쟁취한 뜻깊은 전승철 70돐을 앞두고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시험에서의 대성공으로써 영원한 승리의 력사를 시대와 미래앞에 기약하였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영원한 승리의 력사.

전쟁 은 세상이 우리르러는 절세위인, 천출명장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시여 승리는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한 조선의 이름으로 되었다.

승리는 영원한 조선의 전통이다. 민약 침략세력들이 어제날의 비참한 패전을 교훈을 차를 대신 도다시 이 땅에 덤벼든다면 주제 조선의 무적주먹에 얻어맞아 두개골이 깨지고말것이다. 《볼티모》호처럼 침략의 본지들이 영영 바다속에 가라앉게 되고말것이다.

그런 시각이 온다면 전승세대들의 넋과 조국수호정신을 물려받은 우리 후손들은 아버지, 할아버지들처럼 용약 떨쳐나 침략자들에게 종국적파멸을 안길것이다.

나의 아버지는 림종의 시각에 이런 유언을 남기였었다.

《우리는 달리는 살수 없는 생이다. 우리 당을 받드는 길에서 언제나 영웅의 후손답게 맨 앞장에 서있거라!》

이것은 나의 아버지의 당부 이기 전에 전승세대들이 후손들에게 남기는 절절한 부탁, 위대한 수령님들을 충성다해 받들어온 전세대들처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더 잘 받들며오 시라는 간절한 당부라고 나는 생각한다.

은혜로운 태양이 밝은 빛을 뿌려 우리 조국은 머지않아 천하제일강국으로 더욱 우뚝 솟아올라게 되며 내 조국의 바다도 우리의 행복, 우리의 찬란한 미래를 싣고 영원히 푸른 물결 출렁이게 될것이다.

김 해 림(김군옥영웅의 둘째아들)

